

- 일본의 님비시설 활용 및 고령화 대응 선진사례 견학을 통한 -

지역행복생활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지역행복생활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개요

- 일 시 : 2016. 10. 31(월) ~ 11. 3(목) / 3박 4일
- 장 소 : 일본 오사카시, 사카이시, 교토시
- 대 상 : 19명(공주시 5명, 청양군 7명, 부여군 5명, 충남연구원 2명)
- 주요내용 : 견학1) 역사문화유산 활용 지역재생 사례조사
견학2) 고령화 공동대응 사례조사
견학3) 님비시설 공동 운영 사례조사
- 기 관 : 공주·부여·청양생활권협의회, 충남연구원

Contents

1	국외연수 개요	1
	1 국외연수 목적	1
	2 국외연수 개요	1
	3 국외연수 주요내용	3
2	기관방문	5
	1 기관방문1) 역사·문화유산 활용 지역재생 - 교토 미야마초 가야부키노사토(かやぶきの里)	5
	2 기관방문2) 고령화 공동대응 - 오사카 사카이시청	9
	3 기관방문3) 님비시설 공동 운영 - 오사카 마이시마 소각장	14
3	현장방문	18
	1 현장방문1) 역사·문화유산 활용 지역재생 - 교토 청수사, 산넨자카 및 니넨자카	18
	2 현장방문2)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 아라시야마시 치쿠린 & 노노미야, 도게츠코	19
	3 현장방문3) 지역상점가 재생 및 마을만들기 - 오사카 에비스바시스지·신사이바시스지 상점가	21
4	국외연수 종합	22

-일본의 님비시설 활용 및 고령화 대응 선진사례 견학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국외연수 출장결과보고서

- ◆ 공주·부여·청양생활권은 3개 시·군이 연계협력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 공무원 합동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연계협력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선도지역인 일본의 님비시설 활용 및 고령화 대응 선진사례조사를 통해 보다 더 효율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추진코자 함

1 국외연수 개요

1. 국외연수 목적

- 님비시설을 공동 활용한 지역재생에 대한 선진사례 조사 연구
- 고령자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 새로운 지역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일본의 고령화 대응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문화·관광적 활성화 방안
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하여 선도사업계획에 접목

2. 국외연수 개요

- 연수기간 : 2016. 10. 31(월) ~ 11. 3(목) / 3박 4일
- 연수지역 : 오사카시, 사카이시, 교토시
- 연수인원 : 19명(공주시 5명, 청양군 7명, 부여군 5명, 충남연구원 2명)
 - 지역행복생활권 업무 담당자 17명 : 공주, 부여, 청양
 - 충남발전연구원 2명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위	성명	비고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	이상준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원	유예나	
청양군	기획감사실	기획팀장	김흥근	
	기획감사실	주무관	민경일	
	주민복지실	주무관	최가영	
	안전재난과	주무관	김정수	
	문화체육관광과	주무관	황미라	
	환경보호과	주무관	유경선	
	산림축산과	주무관	이진영	
공주시	시정발전연구과	정책팀장	류근욱	
	시정발전연구과	관광정책팀장	주병학	
	안전관리과	주무관	양현목	
	복지시설사업소	주무관	노종환	
	문화관광과	주무관	류영호	
부여군	환경위생과	청사행정팀장	한종관	
	문화재사업소	문화재관리팀장	김윤중	
	자치행정과	주무관	조성군	
	미래전략담당관	주무관	윤나순	
	미래전략담당관	주무관	박혜원	

3. 국외연수 주요 활동



기관방문

- 기관방문1) 역사·문화유산 활용 지역재생
 - 교토 미야마초 가야부키노사토 : 주민과 행정의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재생 방법과 이를 통한 인구 증가 및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조사
- 기관방문2) 고령화 공동대응
 - 오사카 사카이시청 : 사카이시는 오사카부에 속하는 도시로,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기능 강화, 커뮤니티버스 운행 등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우리 생활권의 향후 과제에 대한 설명 청취 및 토론 실시 및 현장 방문
- 기관방문3) 님비시설 공동 운영
 - 오사카 마이시마 소각장 : 마이시마 소각장 담당자 면담을 통해, 님비시설을 활용한 지역친화형 테마공간 조성 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토론



현장방문

- 현장방문1) 역사·문화유산 활용 지역재생
 - 교토 청수사, 산넨자카 및 니넨자카 : 백제문화권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앞서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방안 조사 연구
- 현장방문2)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 아라시야마시 치쿠린 & 노노미야, 도게츠쿄 :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마을경관 조성 및 관광상품화 방안에 대한 조사
- 현장방문3) 지역상점가 재생 및 마을만들기
 - 오사카 에비스바시스지·신사이바시스지 상점가 : 일본 상점가 재생방안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중심시가지 및 전통시장 재생을 위한 문화·관광적 전략과 대응과제에 대한 조사

일 수	장 소	교통편	일 정
제1일 10/31 (월)	인 천	KE723	▪ 인천국제공항 출발(09:00)
	교 토	전용버스	▪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10:45) ▪ 교토 미야마초 이동 - 미야마초 가야부키노사토 마을협의회 방문
제2일 11/01 (화)	교 토	전용버스	▪ 교토 청수사, 산넨자카 & 니넨자카 이동 - 역사문화유산 활용 현장방문
	아라시야마	전용버스	▪ 아라시야마 이동 - 치쿠린 & 노노미야, 도게츠코 현장방문
	오 사 카	전용버스	▪ 오사카 이동
제3일 11/02 (수)	사 카 이	전용버스	▪ 사카이 시청 방문 - 고령화 관련 사카이시청 기관방문
	오 사 카	전용버스	▪ 오사카 이동 - 마이시마 쓰레기 소각장 기관방문
	오 사 카	전용버스	▪ 난바역 이동 - 에비스바시&신사이바시 상점가 현장방문
제4일 11/03 (목)	오 사 카	KE724	▪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출발(12:25)
	인 천	개인차량	▪ 인천 국제 공항 도착(14:15)

1. 역사·문화유산 활용 지역재생(교토 미야마초 가야부키노사토)

1) 기관방문 개요

- 일시 : 2016년 10월 31일(월) 15:30 ~ 18:30
- 장소 : 교토부 난탄시(南丹) 미야마초(美山町) 가야부키노사토(かやぶきの里) 마치즈쿠리 체험장, 미야마주식회사 연수원
- 참석자 : 19명(공주시 5, 부여군 5, 청양군 7, 충남발전연구원 2)
- 면담자 : 미야마초(美山町) 관광 마치즈쿠리협회장 등 총 3명

2) 미야마초(美山町) 가야부키노사토(かやぶきの里)

- 800~900m 높이의 산에 둘러싸인 산골마을
- 38채 정도의 억새지붕으로 조성된 전통가옥이 잘 보존되어 있어, 1993년 문부과학성이 “전통건물 보존지구”로 지정함
- 현재 약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기존 거주민(10%)과 귀촌한 도시민(도예가, 염색가, 작가 등)으로 구성됨
- 전통가옥을 활용하여,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중
- 2015년 10월 기준 약 25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함

3) 가야부키노사토(かやぶきの里) 답사 시 회의내용

- 전통건물 보존지구 지정으로 인한 애로사항
 - 전통건물의 억새지붕 유지가 매우 어려움
 - 약 20~25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데, 한번 교체 시 전체 교체보다는 부분적인 교체를 통해 인력이나 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음

- 새로운 건물을 건조할 수 없고 기존 건물의 보존만 허락되어, 거주민의 불편이 상당한 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만은 매우 적음
- 전통건물 보존에 대한 노력
 - 중앙정부에서 매년 보조금이 나오고 있음
 - 전통건물 보수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80%정도 보조하고 있음(20% 자부담)
 - 이외 마을경관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 일부 지원됨
 - 주민 스스로, 화재 예방을 위해 매년 2회(5월, 12월) 소방훈련 실시
 -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주민 스스로 가이드를 양성(주민 10여명)하고, 카페 겸용 갤러리, 박물관 등을 조성하여 자체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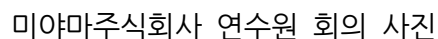
가야부키노사토(かやぶきの里) 답사 사진

4) 미야마주식회사 연수원 회의내용

- 연수원 운영
 - 미야마주식회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 미야마초 마치쓰くり 운영 방안
 - 에코투어리즘을 통한 자연환경 보존 및 관광활성화 도모
 - 인근 교토 지역 관광수요 증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으로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익은 정체 상태임

-
- Figure 1: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Nanyang City Mountain Scenery and Landscape Planning Association. The diagram shows the association as a general incorporated legal entity, established by Nanyang City. It branches into four committees: the Nanyang City Mountain Eco-tourism Promotion Committee, the Nanyang City Mountain Scenery and Landscape Planning Committee (responsible for resident participation), the Nanyang City Mountain Scenery and Landscape Planning Committee (responsible for mountain scenery and landscape planning), and the Nanyang City Mountain Scenery and Landscape Planning Committee (responsible for mountain scenery and landscape planning).

- 이러한 조직의 구성을 통해 지역 내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5) 미야마주식회사 연수원 질의응답

- DMO의 운영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
 - 현재는 DMO에 대한 운영 비용을 100% 난탄시에서 보조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관광수익이 증가할 경우, 미야마주식회사 등을 통한 자체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DMO 산하 기구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현재 산하 기구들은 미야마초 지역 내 입지하고 있는 5개 마을에 있는 조직들이 모두 합쳐져 있는 것임
 - 5개 마을 대표자들이 이러한 조직들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종합하여 DMO 회의에서 대표로 건의하고 있음
 - 5개 마을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DMO회의에서 의견이 불일치되면 그 의견은 폐기 되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수정·보완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야마초의 홍보방법은 어떻게 있는가?
 - SNS, 홈페이지 운영, 유인물(홍보 팜플렛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 중임
 - 더불어 국내외 관광 관련 박람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이를 위해 중앙정부, 난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이외에도 다양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만쪽과 관계가 좋아서 내년 정도 이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할까 하고 있음
 - 금번 기회를 통해 공주·부여·청양과의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좋은 듯 함
 -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좋지만, 중간에 여행사가 참여하게 되면 비용지출이 크기 때문에 미야마초 자체적으로 수립하고자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음

2. 고령화 공동대응(오사카 사카이시청)

1) 기관방문 개요

- 일시 : 2016년 11월 2일(수) 09:30 ~ 11:00
- 장소 : 오사카부 사카이시청
- 참석자 : 19명(공주시 5, 부여군 5, 청양군 7, 충남발전연구원 2)
- 면담자 : 사카이시 고령화 담당자



사카이시청 회의 사진

2) 사카이시 고령화 대응 전략

- 일본의 고령화가 심각해 지고 있음
 -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75세 이상 고령자¹⁾가 유지되면서, 고령화가 심각해 짐
 - 일본 번영의 기회를 만든 단카이 세대로 불리는 인구가 2025년되면 75세에 도달하게 되어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분석됨
-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운영
 -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의 치료나 비용 등 부담 지원, 50%는 공적자금, 50%는 개인보험 등으로 충당
 - 필요지원 2단계, 필요개호 5단계로 구성 : 단계별 지원서비스 제공

1) 75세 고령자: 개호상태에 이르러 간호가 요구되는 사람으로, 일본에서는 따로 관리하고 있음

필요지원 1	10,686명	생활은 가능하나, 일부 개호가 필요
필요지원 2	6,770명	일어서기, 보행이 불안정 (회복,유지가가능성이 있음)
필요개호 1	8,339명	일어서기, 보행이 불안정
필요개호 2	7,947명	혼자 일어서기가 힘들
필요개호 3	5,421명	혼자서일어서기, 돌아눕기가 힘들
필요개호 4	5,401명	활동의 대부분의 개호가 필요
필요개호 5	4,245명	활동 전체의 전개호가 필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지원단계 구분

- 주택 개수 : 단차 제거, 난간 설치, 욕조 개량 등 개인 주택에 대한 개량 자금 지원
- 데이서비스 : 간호가 필요한 고령자를 버스를 모시고 와서 운동, 식사,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녁에 집으로 모셔다 드림
- 방문개호, 방문간호, 데이서비스 모두 비용을 개호보호보험에서 제공함
-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카이시의 고령화 대응
 - 현재 7개 지역포괄지원센터(구에 1개씩)가 운영되고, 정촌 단위에서 21개 개별 지역별 거점을 운영 중임

○지역포괄지원센터
: 21 곳
(각권영역에 1곳)

역할:4개의 주된 지원

○기간형지역 포괄 지원센터
:7군데 (각구청내에 1곳)

역할 :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통괄 · 지원

※ 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



사카이시 지역포괄지원센터 운영 현황

- 지역포괄지원센터는 현재 약 14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포괄지원센터는 향후 사회복지법인을 통한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

	직원수	경비
지역포괄지원센터 (21개소)	1 0 6 人	4 억 7 6 7 0 만엔
기간형지역포괄지원센터 (7개소)	3 9 人	2 억 3 8 7 2 만엔
합계	1 4 5 人	7 억 1 5 4 2 만엔

사카이시 지역포괄지원센터 인력 현황(2015년 기준)

○ 사카이시 지역포괄개호서비스 추진 현황

- 지역포괄개호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난 10년 간 1천억엔(한화 1조원 수준)을 사카이시에서 부담(국비와 시비 포함)
- 고령자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의료, 복지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인 주택 개선까지도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을 활용하지만, 자택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주치의제도(의사, 약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 사카이시는 고령자가 약해지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자 하며(선행연구 72~74세).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개호예방과 사회참여임
- 개호예방프로그램과 생활예방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생활지원, 생활자치 지원 등을 하여 고령자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 모든 것을 중심지에 서 30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에 대한 보조를 위한 비용이 점차 주민들에게 부담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 고령자가 전업주부의 경제활동 증가를 위한 아이돌봄 등 추진, 2) 65세가 넘어가도 어떻게든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임
- 이외 고령자의 사회참여, 즉 취업과 관련한 실버인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60세 이상 건강한 노인이 센터에 등록하면, 센터는 기업을 찾아서 고령자와 연결해 줌(공원 청소, 마트 카트 정리 등)

3) 사카이시 질의응답

- 인구감소 원인과 증가 방안은?
 - 인구감소는 출산률 저하도 문제로 작용한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 보육원의 수를 많이 늘리고, 보육시간을 증가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결혼활동을 해서, 미팅 주선 등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취업활동보다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
- 개호보험과 관련한 자부담이 많은 편인데, 실제 사용은 어떤가?
 - 40세 이상은 무조건 가입한다. 안받는 사람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다.
 -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생활보호로 처리한다.
- 일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일자리는 충분한지?
 - 고령자가 선호하는 업무는 사무인데, 일자리는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직종보다는 고령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
- 부서 종합적인 성격의 센터 운영 시 문제점?
 - 여러 부서가 합쳐진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 민간위탁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 약 7억엔 수준
 - 민간에서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는 적은 편이다.
 - 자기가 개호서비스를 안받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도 생각하고 있다.
- 혹시 현금이나 현물 지원도 있나?
 - 서비스 형태로만 지원된다.
- 직원이 145명인데 소속은?
 - 모두 민간법인 직원으로 공무원은 아니다.
- 전문 요양시설을 활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호서비스 중 사고 등 문제 대응은?
 - 노인홈(요양원)으로 들어간 사람도 많은 편이다. 그 이외 사람들에 대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개호서비스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나?
 - 한국 요양 등급 수준과 동일한 형태이다. 등급은 1년 단위로 변경한다.

- 실제 지원하는 금액은?
 - 7천 3백억엔 중 6백억엔 수준
- 실버노인센터 등은 없나?
 - 그룹홈이란 명칭으로 운영 중, 민간 법인 수준에서 운영 중
- 개호보험 대상은?
 - 생활보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 직원 1명당 노인 관리 수준은?
 - 정확히 모른다.
- 지원하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1만 7천명을 145명이 지원하는 것은?
 - 1명당 100명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 고령자 취업의 성공 사례는?
 - 성공사례보다는 계속 일을 하는 사람(수가 많지 않음), 적게 받아도 천천히 일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돈은 필요한데 어렵게 일하고 싶지는 않다.
- 창업은 지원하지 않고 있나?
 - 창업자는 수가 적지만, 창업세미나를 지원한다. 모든 사람 대상이다.
- 실제 고령자의 취업을 위한 별도 교육은 어떻게 하나?
 - 고령자를 원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어렵다.
- 사카이시 공무원 수가 많은 것 같다? 공무원의 분담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다.
 - 순수한 공무원 수가 6천명이다.(계약직 제외) 계약직으로 공무원 일을 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
- 개호보험 지원 50%는 무엇인가?
 - 국비, 오사카부, 시비가 포함된 것임
- 사카이시 City Promotion사업은 무엇을 하는 사업인가?
 - 사카이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도록 외부에 알리기 위한 노력, 창조, 기획 등을 포괄하는 사업임
- 관광홍보 비용은?
 - 잘 모르지만, 1~2억엔 수준일 듯

3. 님비시설 공동 운영(오사카 마이시마 소각장)

1) 기관방문 개요

- 일시 : 2016년 11월 2일(수) 13:00 ~ 15:00
- 장소 : 오사카부 마이시마 소각장
- 참석자 : 19명(공주시 5, 부여군 5, 청양군 7, 충남발전연구원 2)
- 면담자 : 마이시마 소각장接客 담당자

2) 마이시마 소각장 개요

- 오사카 마이시마섬에 조성됨
 - 오사카 서북부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인공섬 마이시마(舞洲)에 조성됨
 - 7층 건물에 연통높이가 120m나 되는 굴뚝을 가진 소각장임
 - 총 609억엔(610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4년여 공사를 벌인 끝에 2001년 4월말 완공됨
 - 오사카시 등 3개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함께 처리함
 - 하루 최대 900톤의 쓰레기 처리능력을 지니며, 하루 평균 170톤의 대형 쓰레기를 처리하는 오사카 최대의 소각장임
- 오사카를 상징하는 대표 “뽀뽀시설”로 재탄생
 - 오스트리아의 이노베이션 전문 건축가 훈데르트바서가 설계 디자인인 독특한 외관 보유
 - “뽀뽀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의 이미지 개선
 - 더불어, 친환경을 표방하여, 건축외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환경 수목 및 식재, 친환경 야간경관 조명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차별화된 쓰레기 처리 시스템 보유
 - 쓰레기 수송의 효율화와 환경보호라는 관점에서 쓰레기 압축 기관이 달린 대형 CNG 수송차를 이용해 가정으로부터 소각장까지 쓰레기를 수송함
 - 수송된 쓰레기는 다시 소각장에서 불에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로 구분되며 불에 타는 쓰레기도 냄새까지 태워버려 악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음
 - 타지 않는 쓰레기는 분리와 파쇄과정을 거쳐 재활용 자재로 재탄생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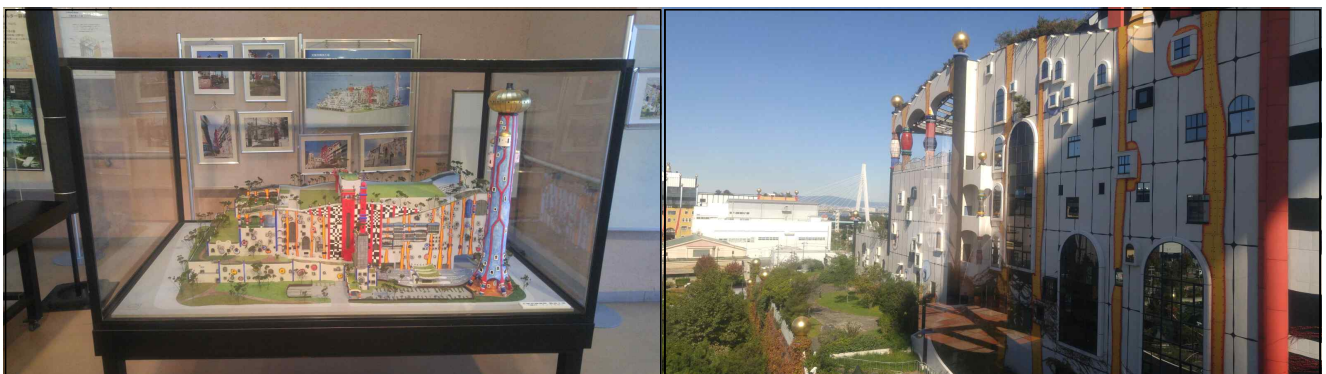
- 외부에 대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마이시마 소각장 방문 사진

3) 마이시마 소각장 외관

- 마법의 성을 연상시키는 외관
 - 전체 약 5층 규모로 조성됨(실제 내부는 3층으로 구성됨)
 - 오스트리아의 이노베이션 전문 건축가 훈데르트바서가 설계 디자인인 독특한 외관 보유
 - 자유로운 곡선위주 건축과 규격이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개구부(창, 출입구 등) 보유



마이시마 소각장 외관 사진

4) 불연성과 가연성을 구분한 소각시설

- 통상적으로 가연성 소각시설만 갖춘 것이 아닌, 불연성 쓰레기도 함께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 목재나 일반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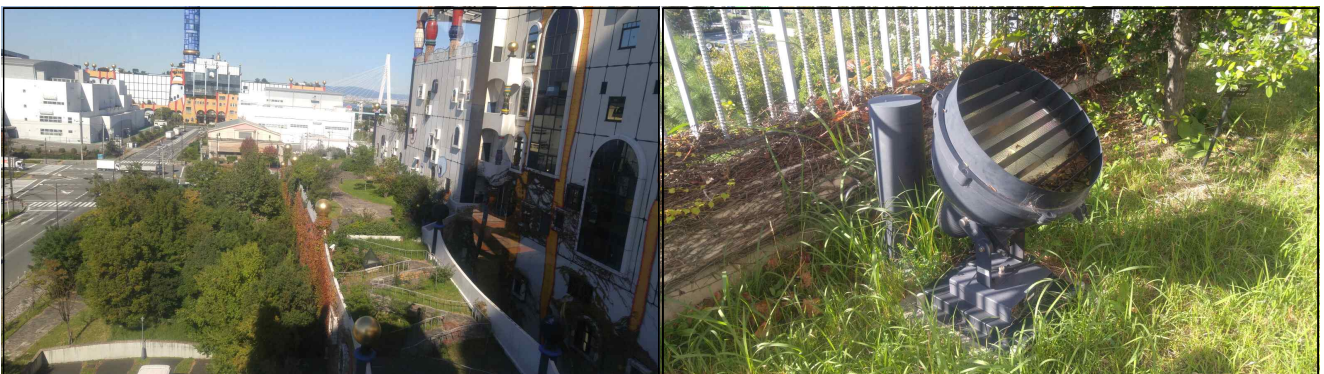
- 철이나 알루미늄 등도 파쇄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
- 이러한 복합적 소각시설을 갖추기 위해, 소각시설 자체도 공간을 구분하여 조성함



마이시마 소각장 내부시설

5) 친환경 시설 요소 구비

- 쓰레기 소각장이 갖고 있는 “님비시설” 이미지 제고를 위한 친환경 요소 도입
 - 외부 공간을 활용한 공원 조성, 수목 식재 등 실시
 - 야간의 밝기에 따라 조도가 조절되는 야간경관조명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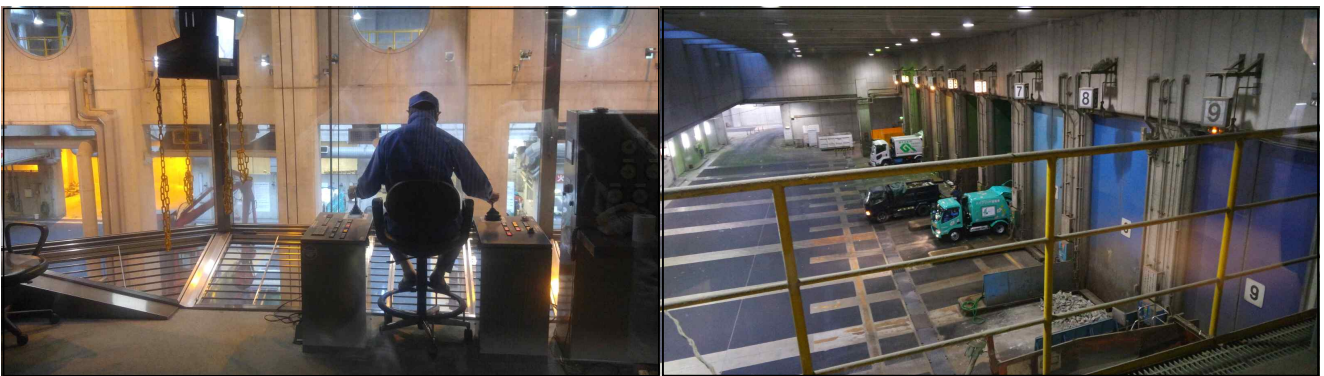


마이시마 소각장 친환경시설 현황

6) 마이시마 소각장 질의응답

- 마이시마 소각장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 현재까지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시간이다.
- 기본적으로 님비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실제 소각장 건립에 대해 찬성하거나 최소한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 3개 시의 쓰레기가 반입되는데,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나?
 - 쓰레기 처리 시스템 자체를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하였고, 소각장 자체가 인공섬에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기 위한 요인이 적었음
- 불연성 소각시설도 갖춘 이유가 있나?
 - 별도의 소각장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측면이 있었음
 - 이로 인해 처음부터 가연성과 불연성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으로 조성하고자 규모와 내부 시설을 동시에 고려하였음
- 소각시설에서 혹시 냄새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나?
 - 최첨단 환기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각로 내부 조차 기압차를 활용하여 냄새가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 내부 인력은 어떻게 되나?
 - 현재 12명씩 4교대로 운영하고 있음
 - 이들을 활용하여 24시간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 모든 시스템을 최대한 전자동화시켰음



마이시마 소각장 자동화 체계

1. 역사·문화유산 활용 지역재생(교토 청수사, 산넨자카 및 니넨자카)

1) 현장방문 개요

- 일시 : 2016년 11월 1일(화) 09:00 ~ 11:00
- 장소 : 교토부 교토 청수사, 산넨자카 및 니넨자카
- 참석자 : 19명(공주시 5, 부여군 5, 청양군 7, 충남발전연구원 2)

2) 현장방문 내용

- 청수사
 - 기요미즈 절은 낭떠러지에 세워진 무대가 있는 본당이 유명한 사원으로, 1994년에 세계 문화 유산에 등록됨
 - 청수사 내부에 “오토와노타키”라는 약수터가 있는데, 기요미즈라는 이름이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함
 - 약수터는 3개의 물줄기를 내뿜는 폭포 형태로 구성되며, 3줄기 청수는 각각 건강, 재산, 지혜를 의미하는 것임
 - 이를 관광상품화하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교토 청수사 현장사진

○ 산넨자카 및 니넨자카

- 일본의 전통 가옥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음
- 산넨자카와 니넨자카는 키요미즈데라에서 청수사로 가는 도중의 골목길임
- 현재는 골목길 좌우로 전통 공예품이나 전통과자 등을 판매하는 가게 등이 밀집되어 상업가로를 형성하고 있음
- 청수사라는 역사자원과 연계하여, 골목길이 갖고 있는 전래 설화를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하고 소비하게 함으로써, 관광수입을 창출하고 있음



산넨자카 및 니넨자카 현장사진

2.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아라시야마시 치쿠린 & 노노미야, 도게츠쿄)

1) 현장방문 개요

- 일시 : 2016년 11월 1일(화) 13:00 ~ 15:00
- 장소 : 교토부 아라시야마시 치쿠린 & 노노미야, 도게츠쿄
- 참석자 : 19명(공주시 5, 부여군 5, 청양군 7, 충남발전연구원 2)

2) 현장방문 내용

- 아라시야마시 치쿠린 & 노노미야, 도게츠쿄
 - 대나무숲으로 유명한 치쿠린은 현재도 각종 영화 및 CF의 촬영지로 활용되고 있음
 - 지역의 유명한 자연자원의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아라시야마시 대나무숲 현장사진

○ 주민의 자발적 마을만들기

- 아라시야마시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 내 가로 및 주택의 외관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함
- 인근에 산재한 사찰 등과 연계한 외관의 동일화 사업 추진
- 주거지 내부도 산책로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아라시야마시 주거지 내부 전경

○ 관광지과 주거지, 상업지의 분리

- 치쿠린과 노노미야, 도게츠코의 중간점에 별도의 상업지구를 형성시켜, 기존의 역사관광지와 주거지의 훼손을 최소화시키고 있음
- 상업지구 내 음식점이나 기타 판매점을 입점시키고, 주거지 내에서는 기존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이외에는 입점을 제한하고 있음
- 마을만들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역 화합을 도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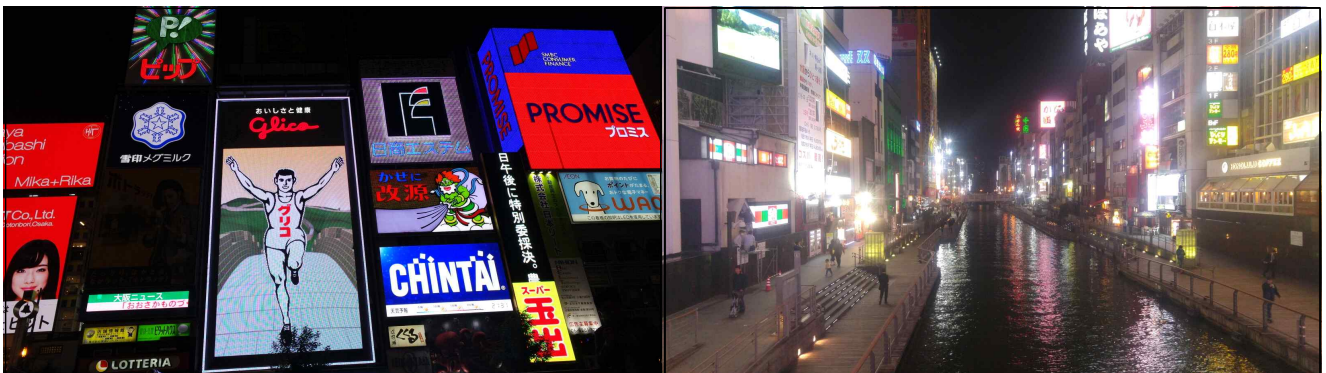
3. 지역상점가 재생 및 마을만들기(오사카 에비스바시스지·신사이바시스지 상점가)

1) 현장방문 개요

- 일시 : 2016년 11월 2일(수) 16:40 ~ 18:30
- 장소 : 오사카 에비스바시스지·신사이바시스지 상점가
- 참석자 : 19명(공주시 5, 부여군 5, 청양군 7, 충남발전연구원 2)

2) 현장방문 내용

- 오사카 에비스바시스지·신사이바시스지 상점가
 - 오사카 상점가는 총 연장 2.3km의 4개 상점가 연결된 오사카 최대의 상업지구임
 - 상점가의 특성 상 지역 내 중심가로 역할을 병행함으로써,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의 유동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임
 - 상점가의 연결과 다양한 상품 판매,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등으로 인해 관광객이 많은 찾는 오사카 대표 관광지이자 상업지구임
 - 상점가 만들기 사업을 통해 테넌트믹스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 도톤보리
 - 글리코로 대표되는 관광사인과 하천이 명물인 지역으로, 에비스바시스지·신사이바시스지 상점가의 연결부에 조성됨
 - 관광사인과 주변 하천을 활용한 수변관광이 결합되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상점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부각됨



교토 청수사 현장사진

4 국외연수 종합

1) 주민의 자발적 참여 필요

- 생활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마이시마소각장이나 사카이시청의 고령화 대응과 같이, 일반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이나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펄비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자체가 감수할 수 있어야 함
- 주민의 자생노력이 필요함
 - 미야마초 가야부키노사토의 경우,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지역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정상적인 생활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더 잘 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는 다른 현장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이를 활용하여 살아가기 위한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생활권 사업을 통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 스스로가 일정 수준의 자부담이나 활성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더불어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을 다양화하고 보다 현실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펄비시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주민 삶의 질 제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펄비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모색

이 필요함

- 아라시야마시의 치쿠린, 사카이시의 고령화 정책과 같이 그 자체로도 주민이 요구하는 핼비시설의 경우, 주민 스스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러한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요구하는 도로 개설이나 정비, 건물 외관 정비와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
- 공주부여청양생활권의 경우, 주민들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고령자 지원정책 등 주민 입장에서 핼비시설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 주민이 거부하는 님비시설을 “핼비시설”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오사카 마이시마 소각장의 경우, 그 자체로 “님비시설”이지만, 현재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음
 - 이와 같이 비록 님비시설이지만, 주민들에게 핼비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님비시설의 강압적인 유치가 아닌, 이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로 만들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한 협의만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보상이나 지원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고령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우리나라도 고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해 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령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함
- 현재도 다양한 고령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것이 다양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이나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됨
- 따라서 사카이시와 같은 보다 종합적인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통합화가 필요함
-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과중이나 부서 간 의견 충돌 등을 해소하기 위한 외부 전문기구의 활용방안 모색도 필요함